

의안번호	제 597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4월 19일 (제355회)

#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04월 19일

#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97
----------	-----

제안연월일 : 2017. 04. 19.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세종역 신설시 오송역은 저속철로 전략하게 되며 막대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되므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 현재 검토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제안이유

-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차 횟수가 하루 120여회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함
-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음.
- 이에,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세종역 신설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대표, 한국철도시설공단

#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KTX 오송역은 지난해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의의 중심에 서야 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오송역에서 세종시간 BRT개통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역 설치의 명분이 되었던 복합활증 폐지에 따른 택시요금 인하 등 오송역과 세종시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검토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7년 04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